패전인가 《승전》인가



평 양 출 판 사
주체102(2013)년

이 땅에서 6.25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60년세월이 흘렀다.

바로 60년전 7월에 세계《최강》을 자랑해온 미국을 타승한 공화국의 하늘가에 터져오르던 전승의 축포는 오늘도 세인의 기억속에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하지만 세계제패야망의 실현을 위해 흰것도 검은것이라고 덮어놓고 우겨대는 미국은 지금 60년전의 참패와 수치를 뻔뻔스럽게 오도해보려 하고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잊혀진 전쟁》, 《국치의 날》로 저들스스로 패전을 인정하여 정전협정문에 도장을 찍은 7월 27일을 계기로 벌려놓고있는 《승전》놀음의 진상을 파헤쳐보자.

패전자의 광대극

최근년간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6.25조선전쟁과 관련하여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지난 2009년 7월 미국국회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안》이 통과된데 이어 7월 27일을 그 무슨 《기념일》로 지정하고 조기를 띄울데 대한 오바마의 지시가 하달되였는가 하면 2010년 6월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층부가 총출동하여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것과 관련한 《기념》행사라는것을 벌려놓았다.

또한 2011년 5월에는 미국방성산하에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위원회》를 내오고

조선전쟁에 끌려나왔던 고용병들에게 《유공자증명서》를 발급해주었으며 이어 7월 27일에는 조선정전협정체결을 《기념》하는 행사가 미국정부의 주도로 진행되게 된다.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지 60년이 되는 올해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더 고조되고있다.

미국은 년초에 올해를 조선전쟁《참전용사의 해》로 지정하고 국방성청사안에는 《한국전쟁전시관》이라는것을 설립하였다.

또한 미국전역에서 7월을 《6.25전쟁 정전의 달》로 지정하였으며 각 주들에서는 《제24보병사단 재회의 날》, 《한국전 참전증》수여식, 《한국전쟁기념관》 제막식, 《한국전 정전협정서명식》재현, 《려명의 문신》, 《한국전》기념 야간열병식, 《하사 레클리스작전》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

들을 진행하였거나 계획하고있다.

7월 27일에는 미국전역에 조기를 띄우며 워싱톤에 있는 《한국전쟁기념비》앞에서 진행되는 《기념》행사에 오바마가 미국대통령으로서는 18년만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남조선호전광들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기념》행사놀음에 열을 올리고있다.

현 남조선당국은 이미 《정권인수》기간 정전협정체결《기념》행사를 주요《국정》과제로 정하였으며 《국가보훈처》는 정전협정체결《기념》행사들을 통하여 6.25전쟁을 패전으로 보고있는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한편 《참전용사》들을 우대하고 참전국들과의 《혈맹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1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국에 추종하여 조선전쟁에 동원되였던 참전국들을 찾아 보은행사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녹쓴 철조망을 녹여 만든 《정전 60주년 기념메달》을 추종국가고용병들과 그 후손들에게 수여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는가 하면 6월 23일―29일사이에는 《유엔군》소속 추종국가 청소년들을 끌어들여 《유엔참전국 청소년평화캠프》라는것을 벌려놓았다.

또한 6월 24일에는 현 집권자가 서울에서 진행된 《6.25전쟁 63주년 국군 및 유엔군참전용사 위로연》에 참가하여 《후세들에게 6.25전쟁을 정확히 알리는 력사교육도 반드시 해나갈것》이라고 하였다. 6월 18일에는 미국방성청사에서 벌어진 《한국

전쟁기념관》 개관식에 참가한 미국주재 남조선대사가 흔히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우는 조선전쟁을 그 무슨 《잊혀진 승리》로 정립해야 한다는 상전의 얼토당토않은 소리에 맞장구를 치면서 《<잊혀진 전쟁>에 흐르는 정서가 좌절감인 반면에 <잊혀진 승리>에는 자부심이 담겨있다.》느니, 《조선전쟁은 결코 <잊혀진 전쟁>이 되여서는 안된다.》느니 하고 떠벌였다.

한편 6월 25일에는 동해상에서 《옥계지구전투승리》행사가, 26일에는 부산에서 10여척의 군함과 10여대의 비행기가 동원되여 《대한해협해전전승》행사가 진행되였다.

7월 27일에는 서울에서 6.25전쟁시기 미국대통령이였던 트루맨의 손자, 조선전쟁에 《유엔군》을 파견하도록 유엔결의를 조

작하는데 가담하였던 초대유엔사무총장의 증손자 그리고 패전의 책임을 지고 떨어져 나갔던 력대 《유엔군》사령관들과 6.25전쟁시기 미국에 추종하였던 나라들의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함께 지켜온 60년, 함께 나아갈 60년》이라는 주제의 《참전감사》행사가 진행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밖에도 각종 명칭의 《기념》행사놀음에 품을 들이고있다.

한마디로 미국과 남조선전역이 정전협정체결 60년 《기념》행사놀음분위기로 들끓고있다.

그러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기념》행사놀음에 이렇듯 극성을 부리고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그 목적은 우선 이 놀음을 통하여 6.25조선전쟁을 《승전》으로 둔갑시킴으로써

패전의 수치를 모면하려 하는데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지난 6.25조선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러왔다. 그 리유에 대하여 《제2차 세계대전과 웰남전쟁사이에 끼여있어 미국젊은이들이 잘 모른다.》는것을 들고있지만 사실은 조선전쟁에서의 패배의 수치를 하루빨리 잊으려는데로부터 그렇게 부른것이다.

그런데 지금 벌려놓고있는 《기념》행사들에서 미국은 《잊혀진 전쟁》대신 《잊혀진 승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이번 계기를 통하여 패전으로 인식되여있는 6.25조선전쟁의 의미를 《승전》으로 바꾸어놓으려 하고있다는 증거로 된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포한이래 제2차 세계대전까지 110여

차이상에 달하는 침략전쟁들을 감행하여 광대한 령토와 막대한 재부를 축적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후에는 그 어느 나라도 어깨를 견줄수 없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소유하고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까지 품게 되였다.

이렇듯 세계《최강》의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던 미국이 경제 및 군사력에 있어서 저들과 대비도 할수 없고 또 근 40년간에 달하는 일제식민지기반에서 독립을 이룩한지 겨우 5년, 창건을 선포한지는 도무지 2년도 채 못되는 청소한 공화국과의 전쟁에 15개에 달하는 추종국가병력들을 끌어들인것자체가 체면에 어울리지 않았는데 그나마 대참패를 당하고말았으니 실로 그것은 미국력사에 있어서 수치

중의 수치, 망신중의 망신이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미국과 남조선은 《북의 남침에 의해 6.25전쟁이 일어났다.》, 《6.25전쟁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세계가 합심하여 전승을 가져온 전쟁》이라고 기만적인 선전을 해왔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물론 미국과 남조선내부에서도 조선전쟁은 북에 대한 침략전쟁이며 《미국주도의 련합군측이 패전을 기록한 전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으며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일부 추종국가고용병들은 미국인들에게 내놓고 《너희들은 6.25전쟁에서 패했다.》고 조소하고있다.

이로부터 올해 정전협정체결 60년을 맞으며 《기념》행사들을 요란하게 벌려놓고

6.25전쟁이 북의 《남침》을 저지시킨 《정의의 전쟁》으로, 패전이 아닌 《승전》으로 둔갑시킴으로써 그 수치를 모면하려는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기념》행사놀음을 통하여 노리는 목적은 다음으로 이 광대놀음을 통하여 제2의 조선전쟁도발과 그 수행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는데 있다.

지금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다국적련합무력으로 확대강화하고있는 목적이 이를 통하여 제2의 조선전쟁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적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데 있다는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침체기에 놓여있는 미국경제가 세계제패전략실현을 뒤받침해주기 어려워진 조건에서 추종세력들의 힘을 빌어서라도 세계제

패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것이 미국의 속심인것이다.

그런데 지난 조선전쟁에서 미국이 패하고 미국에 추종하여 조선전선에 병력을 파견하였던 나라들이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유엔군사령부》에서 무력을 모두 철수시킨 조건에서 제2의 조선전쟁에 추종세력들을 다시 끌어들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였다.

게다가 지금 벌어지고있는 남조선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반환놀음도 미국에 불리하게 번져지고있다.

미국은 현재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 틀어쥐고있는 남조선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에 반환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 이후에도 남조선군의 통수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해왔으며 지난

6월 1일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후 《한미련합사령부》를 《한미련합전구사령부》로 전환하기로 남조선과 합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미련합전구사령부》는 남조선군의 합동참모본부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부가 통합되며 그아래 륙군, 해군, 공군, 해병대, 특수전 등 5개의 련합구성군사령부가 설치된다. 그리고 사령관은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부사령관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 맡으며 련합구성군사령관도 공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조선군이 맡게 된다.

외형상으로는 《한미련합전구사령부》와 각 구성군사령관직을 남조선군이 차지함으로써 작전지휘권이 남조선군에 넘어가는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허울뿐인 사령관자리만 남조선군에 내여주는것으로서 결

국 민심을 기만하는데 지나지 않는것이다.

미국의 속심을 간파한 남조선 각계에서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연방 울려나왔다.

《자주민보》(2013년 6월 27일부)는 《한국군이 련합구성군사령관을 맡기로 한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작전지휘의 핵심은 정보에 있는데 정찰능력, 감시체계 등을 모두 미군에 의존하고있는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하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때문이다. 또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미해군을 한국군이 지휘하는것도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결국은 부사령관을 맡는 미군이 작전지휘를 할수밖에 없으며 사령관은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리유로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우리 합참의장이 미국군을

지휘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유치원생이 대학생을 지휘하는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실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누가 맡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 … 한미련합사는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며 항상 협의하는 관계이기에 상관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미당국은 마치 한국군이 전작권을 돌려받고 자주국방을 하는것 같지만 실제 내용상 아무 변화도 없는 눈속임을 하고있다. 특히 미국은 실질적으로 여전히 한국군을 지휘하면서도 한국군의 요청에 못이기는척 하면서 선심쓰듯 련합사령부 구성에 동의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는 의혹도 일고있다.》라고 미국의 의도를 발가놓았다.

그리하여 미국은 제2의 조선전쟁수행에

추종세력들을 끌어들이고 남조선군을 총알받이로 적극 써먹기 위하여서는 이 나라들에 신심을 안겨주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타산하고 《기념》행사놀음에 그토록 열을 올리고있는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또한 《기념》행사놀음을 저들의 전쟁책동으로 인한 저들내부의 심리적공포심을 가라앉히는 계기로 활용해보려 하고있다.

최근시기 미국과 남조선에서는 공화국의 평화적이며 합법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걸고 유엔을 발동하여 제재놀음을 벌리고 북침전쟁책동에 매달려있는것과 관련하여 전쟁공포증이 확산되고있다.

지난 4월 중순 미국에서 117차 보스톤마라손대회도중 4 500명의 선수들이 결승선에 들어서던 시각에 10여초간격으로 수십㎙

거리를 사이에 두고 강력한 폭발이 2차에 걸쳐 일어났다. 순간 현장에 있던 미국인들이 《북이 미싸일을 쐈다.》고 하면서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으며 그날 인터네트에는 《북미싸일발사로 미국이 아수라장》, 《북미싸일 본토타격》이라는 글들이 올라 미국사회를 전쟁공포에 휩싸이게 하였다.

미련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 등은 황급히 나서서 《북의 소행일 가능성은 낮다.》, 《국제테로조직이나 미국의 자생적테로조직의 범행으로 보인다.》고 발표하면서 전쟁공포에 떨던 주민들을 안정시키는 놀음을 벌렸다고 한다.

또한 4월 11일 미국방장관 헤이글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괌도에 중간급의 비상경계령을 내렸는데 섬당국은 즉시 정기방송을 중단하고 유사시에 대처

한 전시방송을 하면서 마치 북의 미싸일 공격이 박두한듯 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고동까지 울리며 비상상황을 조성하고 《폭발에 대비하여 문과 창문에 테프를 붙이라.》고 요구하여 주민들속에서는 당장 북의 미싸일이 날아오는줄 알고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지는 등 섬전체가 아비규환의 수라장이 되였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남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3월 연평도지역에서는 제2의 연평도포격전이 또다시 재현될수 있다는 불안감에 주민들이 밤에 옷도 벗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군 하였는가 하면 대피소를 보수한다,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하면서 분주탕을 피웠으며 이 지역에서 꽃게잡이를 하던 어민들도 《돈을 벌려다가 목숨을 잃을것 같다.》, 《긴장악화로 한해벌이를 망

쳤다.》고 하면서 불안에 휩싸여 섬을 떠났다.

그리고 경기도지역에서는 하루 1천여명에 달하던 관광객수가 절반이하로 줄어들어 식당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오던 주민들이 생활상타격을 받게 되면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광란극에 치를 떨며 민심이 뒤숭숭해졌다.

또한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합동핵전쟁소동이 절정에 이르러 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달린 엄중한 정세와 관련하여 이에 강력히 대응하여나갈것을 선언한 지난 3월 30일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이 발표되자 남조선인터네트들에는 《북이 전시상황을 선포했다니 정말 전쟁이 날것 같다.》, 《진짜로 전쟁이 나냐, 심장이 떨린다.》 등으

로 공포와 불안에 떠는 민심을 반영한 글들이 게시되는 등 전쟁공포증은 더욱 확산되였다. 외국류학생들이 남조선을 탈출하거나 류학을 포기하고 외국인투자가들이 자금을 해외로 빼내가는 현상이 나타나 주식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전쟁과 관련한 헛소문과 류언비어도 나돌아 전쟁공포증을 더욱 증대시켰다.

지난 4월 18일 채석장에서 발파하는 소리를 듣고 《대포소리가 들린다.》고 앞을 다투어 신고하는 소동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가족, 친척들이 불안에 떠는 현상이 나타났다.

인터네트상에도 《북의 미싸일공격시 가장 안전한 곳은 중국관광객이 많은 서울시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이다.》는 등의 류언비어들이 나돌았으며 주민들은 대피방

법을 터득하고 전쟁대비물품을 준비하는데 큰 관심을 돌림으로써 주요생활필수품가격이 폭등하였다.

이렇듯 저들자신이 전쟁공포증을 확산시킨것과 관련하여 그로부터의 출로를 《기념》행사놀음에서 찾고 그를 통하여 사회전반에 만연된 심리적공포와 뒤숭숭해진 분위기를 수습하려 하고있다.

한편 남조선호전광들은 이를 기회로 남조선내부에 반북적대감을 고취하려 하고있다.

지난해 11월 남조선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6.25전쟁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불과 9.4%밖에 되지 않았으며 또한 20대이하의 청소년중 23%는 6.25전쟁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새로운 북침전쟁도발을 꿈꾸고있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에게 있어서 결코 환영할만 한 일이 아니였다.

이로부터 이들은 정전협정체결 60주년 《기념》행사놀음을 남조선주민들 특히는 청소년들속에 대북적대시감정을 고취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있다.

얼마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9%가 6.25전쟁을 북침전쟁이라고 대답한데 대하여 남조선집권자가 《충격적》이라느니, 《이번 한번이 아니라 매년 여론조사에서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잘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많았다.》느니 하면서 《결코 묵과할수 없는 문제이기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것》이라고 한 사실도 지금 벌어지고있는 《기념》행사놀음의 목적이 어디

에 있는가 하는것을 엿볼수 있게 한다.

지난 6월에 추종국가청소년 100명과 남조선대학생 100명을 모아놓고 현충원에 참배하고 참전 1세대와의 상봉모임, 비무장지대 및 《제3땅굴》견학 등 《유엔참전국청소년평화캠프》라는것을 진행한것도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총적으로 볼 때 지금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고있는 정전협정체결 60주년 《기념》행사놀음은 6.25조선전쟁에서의 대참패로 땅바닥에 떨어진 저들의 체면을 추켜세우며 새로운 조선전쟁도발과 그 수행에 유리한 제반 환경을 마련하여 대조선침략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데 그 진의도가 있는것이다.

진실은 감출수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미국의 조선전쟁도발은 제2차 세계대전후의 세계정치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 제국주의적대내외정책의 필연적산물이였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제국주의나라들이 약화된 틈을 리용하여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으로 등장한 미국은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민주력량, 민족해방력량에 대한 전면적인 반동공세로 넘어갔으며 그 돌파구를 당시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이 가장 세차게 벌어지고있던 극동 특히는 조선에서 뚫어보려고 획책하였다.

미국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말기에 조선

침략계획을 완성하였으며 일제가 패망하자 그 실현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1945년 9월 8일부터 10월말까지의 기간에 해방군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군은 단순한 강점군이 아니라 전 조선을 무력으로 타고앉기 위한 침략전쟁무력이였다. 미국이 남조선에 들이민 3개 사단 병력중 2개 사단은 38°선접경지대에 배치되여 각종 포와 땅크, 현대적인 최신무장장비들을 갖추고 임의의 시각에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대기하고있었다.

하기에 미국인들자체가 《실제로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월가의 전쟁은 그의 장군들이 남조선에 발을 들이민 바로 그 순간 1945년 9월에 시작되였다.》고 자인하였던것이다.

남조선에 리승만《정권》이 조작된 후 미

국은 북침전쟁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쳤으며 1948년—1949년 경제공황을 겪으면서부터는 그로부터의 출로를 조선전쟁에서 찾고 전쟁준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를 두고 당시 미국잡지 《라이프》는 《이번 전쟁만큼 완전히 준비되여있은 일은 우리들의 력사가 시작된이래 없는 일이였다.》고 평하였다.

전쟁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놓은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리승만군대를 내몰아 전쟁의 불을 지르게 하였다.

원래 미국은 전쟁계획을 3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조선침략전쟁으로부터 시작하며 2단계는 전쟁의 불길을 중국으로 확대하고 마지막단계는 씨비리로 침공하며 작전개시는 1949년으로 예견하였었다. 그리하여 1947년

부터 남조선군을 북침무장도발에로 내몰았다. 1949년에 이르러 남조선군의 무장도발회수는 무려 2 600여회에 달하였다.

하지만 도발때마다 거듭 참패를 당하자 미국은 남조선군이 38°선을 돌파하고 미군을 즉시 투입하는것으로 조선전쟁계획을 수정하였으며 그 시기도 1950년도로 미루었다.

조선전쟁전야인 1950년 6월 서울에 날아든 미국무성 고문인 덜레스는 38°선일대의 남조선군진지들에 대한 현지시찰을 벌려놓고 작전지도와 모형사판까지 들여다보면서 전쟁계획을 최종검토하였다. 2차 《국회》개원식에 나타나서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립장을 알려주고 《북진통일》을 암시하면서 각방의 《원조》를 약속하였다. 이어 공화국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며 유엔결정에 따라 미군이 출동할 때까지

2주일만 지탱할데 대한 지령을 주었다.

또한 리승만과 외무부 장관에게 앞으로 있게 될 《위대한 극적사변》에서 《용기와 결단》을 발휘하라고 하면서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도서까지 쥐여주었다. 그리고는 조선전쟁이 일어나자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공화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를 강압적으로 조작해냄으로써 세상사람들을 기만하였다.

그러나 결코 침략자, 도발자의 정체는 감출수 없었다.

조선전쟁방화의 주역을 맡았던 맥아더는 《이 전쟁은 나의 계획이였다.》고 실토하면서 침략전쟁을 도발한 죄행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미국은 철저한 사전준비밑에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

서 먹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북침전쟁을 도발하였으나 전쟁초기부터 수세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인민군대의 단호한 반타격전에 넋을 잃은 미국은 겨우 전쟁개시 1년만에 흰기를 들고 공화국에 정전담판을 구걸해나섰다.

그러나 미국은 정전담판의 시작에서부터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로골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면서 어떻게 하나 《영예로운 정전》, 《유엔군의 승리》를 이루어보려고 책동하였다.

정전담판의 막뒤에서 새로운 군사적공세를 준비해온 미국은 1951년 8월 중순부터 대규모적인 《하기공세》를 개시하였다가 참패를 당하였으며 여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정전으로써는 아무것도 바랄것이 없다.》고 하면서 또다시 면밀한 준비밑

에 《추기공세》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1951년 10월 25일부터 판문점에서 정전담판이 다시 막을 올리게 되였으며 그때로부터 1년 9개월 지난 1953년 7월 27일 미국이 정전협정문에 항복도장을 찍음으로써 전쟁은 조선인민의 승리로 끝나게 되였다.

이로 하여 미국의 세계《최강》의 강대성의 신화는 깨여지고 그 취약성이 세계의 면전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였다.

조선침략전쟁에서의 참혹한 패배를 통하여 미군부 및 정부의 우두머리들도 저들의 강대성의 신화가 깨여져나간 사실을 실토하지 않을수 없었다.

마크 클라크(《유엔군》사령관)는 떨리는 손으로 정전협정문건에 수표를 하

고나서 40년간의 군대생활에서 조선전쟁에서처럼 고난을 겪은 기간은 없었다고 하면서 《나는 본국정부의 훈령을 리행함에 있어서 승리없는 휴전에 조인한 사상최초의 미군사령관이라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영예>를 획득하게 된것이다. … 나는 우리가 승리를 획득할수 있었다는 소위 군사전문가들의 성명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나는 미국에서 맨 처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휴전협정에다 조인한 사령관이다.》, 《나는 패배감을 느꼈다. 솔직히 말해서 휴전협정조인을 끝낸 후 형언할수 없을만큼 좌절감에 빠졌던것이다. 그리고는 끝내 소리없는 눈물마저 흘렸다. 비단 나만이 이런 심정이였을가. 나의 전임자였던 더글라스 맥아더원수와 마듀 비 릿지웨이대장도 나와 똑같

은 심정이였을것이다. 아니 그들은 더욱더 통탄하는 심정이였을지도 모른다.》, 《승리없는 전쟁, 그것은 미국력사에 없는 술어이다. 그러나 한국전에서 미국은 력사상 처음으로 승리없는 휴전에 조인을 했다. 력사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할것인가. 내 개인적인 심정을 말한다면 그것은 아쉽고 통탄할 일이였다.》고 고백하였다. 클라크가 조선정전협정문에 도장을 찍고 미국으로 가던 그때 비행장에 마중나갔던 그의 모친은 아들의 몰골을 보고 《그 당당한 기개도 위풍도 간곳 없이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두줄기의 눈물만이 흘러내렸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클라크의 몰골만이 아니라 조선전쟁에서 강대성의 신화가 산산쪼각이 난 패전한 침략자의 처참한 몰골이였다. 조선침략전쟁계획의 작성자이며

첫 《유엔군》사령관이였던 맥아더는 《개국이래 미국의 위신이 전세계에서 지금처럼 그렇게 땅에 떨어진적은 없었다.》고 했으며 미합참의장인 브랫들리는 조선전쟁을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만난 적과 싸운 잘못한 전쟁으로서 미국에 있어서 커다란 군사적재난이였다.》고 했다. 캘리포니아주둔 사단장 할테르슨은 《미국은 조선에서 무엇 하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문을 발로 찼으나 방안에 들어가는 일도 안되고 나오는것도 안된것이다.》고 실토하였다. 또한 패전장군 밴플리트는 《깊은 현실적지각을 가지고있는 미국사람이라면 정전을 수치스러운 감정으로 대하여야 할것이다.》고 했고 미극동해군사령관 죠이 역시 《조선정전은 미국의 승리대신에 나타난 가엾은 물건이

며 전례없는 굴복이며 <적>의 승리였다.》고 고백하였다.

그리고 미국무장관 마샬도 《신화는 깨여지고말았다.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던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니였다.》, 《우리는 조선에서 심대한 패배를 당하였다.》고 하였는가 하면 당시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59분만에 방송마이크앞에 나타나 《대가는 컸다. 이것은 비극적으로 쓰라린것이다.》라고 비명을 질렀으며 리승만패당은 7월 27일을 《국치일》이라고 통탄하였다.

미국의 언론들도 조선전쟁에서의 자국의 패전을 시인하는 보도들을 하였다.

《서부개척이래 미국이 치른 대소의 숱한 전쟁가운데서 조선전쟁만큼 미국인들이 좌절을 맛본 전쟁은 없었다.》

《미군의 병사들과 장교들은 무장에서의 우월성이 승리를 담보하지 못한다는것을 자각하였다.》

…

이것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며 위세를 뽐내다가 조선전쟁에서 만신창이 되여 세계면전에서 수치와 망신을 톡톡히 당한 미국의 심리상태가 그대로 반영된것이다.

조선전쟁에서 미국이 당한 손실은 태평양전쟁 4년동안에 입은 손실의 거의 2.3배에 달하였다.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미국이 당한 인원 및 무장장비손실을 자료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미군 40만 5 498명을 포함하여 156만 7 128명 살상포로

- 격추격상 및 로획당한 비행기 12 224대
- 파괴로획당한 땅크, 장갑차 3 255대
- 파괴로획당한 각종 포 7 695문
- 격침격파당한 함선 564척
- 파괴로획당한 자동차 13 350대
- 로획당한 각종 저격무기 925 152정

그뿐이 아니다. 미군의 유명한 살인장군들이 죽거나 인민군대에 포로되여 떳떳치 못한 칭호를 받게 되였다.

숱한 사병들을 땅속에 묻은 스미스는 《패전장군》에 《무덤장군》이라는 더러운 별명까지 얻었으며 미제8군사령관이였던 워커는 인민군적후부대의 매복에 걸려 즉사하였다.

또한 24보병사단장 띤은 목숨을 건져보려고 허줄한 병사복을 입고 도망치다가 나

어린 인민군병사에게 포로되여 두손을 버쩍 쳐들고 끌려가는 신세가 되였다.

그밖에도 무어, 카이져 등 유명한 미국의 살인장군들이 죽음을 당하였다.

조선전쟁에서 당한 미국의 손실에 대하여 당시 미국잡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조선전쟁에서 《미군의 손실은 미국이 다섯번의 대전쟁 즉 독립전쟁, 1812년전쟁, 메히꼬전쟁, 미에(미국—에스빠냐)전쟁 및 필리핀전쟁에서 입은 손실을 다 합친것보다 2배이상 더 많다.》고 전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지난 6.25조선전쟁에서의 미국의 패배를 립증하는 명백한 증거로 된다.

이렇듯 6.25조선전쟁은 공화국에 있어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조국

강토와 민족의 운명을 사수한 영예로운 승전이였으며 미국에 있어서는 침략전쟁사상 처음으로 패전을 기록한 수치스러운 전쟁이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교훈을 찾을 대신 아직까지도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전쟁에서 패배한지 60년이 되는 올해를 새로운 침략전쟁정책수행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회로 삼고있다.

그러나 진실은 가리울수 없는 법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제아무리 패전자의 몰골을 가리우고 기만적인 《승전》놀음에 매달리면서 기어이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고 하지만 자멸의 길만을 재촉할뿐이다.

얼마전 미국에 있는 통일학연구소 소장

은 평양방문기회에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을 돌아보고나서 이렇게 썼다.

《참관을 통해 내가 알게 된것은 북은 재래식무기만 가지고서도 군사강국이라는 사실이다. …세계<최강>을 자처하는 미국군과 격돌할 반미전면대결전에서 인민군이 능히 이긴다고 자신만만하게 공언하는것도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되였다.》

온 민족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기만적인 《승전》놀음의 진상을 옳바로 가려보고 그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할것이며 기어이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반전평화투쟁의 도수를 높여나가야 할것이다.

패전인가 《승전》인가

집 필	김 영 일
장 정	김 윤 일
교 정	어 광 남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2(2013)년 7월 15일
발 행	주체102(2013)년 7월 20일

ㄱ—1161ㄷ